



명사초대석①

鄭 乙 炳
(작가)

내가 얻는 公害자료

직업이 글을 쓰는 일이라 평생 책을 손에
서 놓지 않고 살아 왔다. 글의 소재를
찾기 위해 여행도 많이 했지만 책에서 얻는 지
식이 내게는 컸다.

지금도 책을 읽을 때는 꼭 정독을 해야 하는
책은 꼼꼼히 따져 읽지만, 보통은 다독을 위해
속독을 한다. 그리고 얻어낸 지식을 분명히 하
기 위하여 관련되는 자료를 찾아 노트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나머지 지식을 조언 받아
확고한 내 자료로 만든다.

작가 수업 때 부터의 습관이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그것도 거의 전문가 수준
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추구해 온 방법이
다.

이는 영국의 소설가 서머세트 모음이 권유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모음은 “양고기
맛을 표현하기 위해 양 한마리를 다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고 했다. 그의 권유는 “직접

병든 한강은 시멘트침대에서 죽어가고 있고, 때마침 잿빛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산성눈이다. 쫓기듯 집에 돌아와 TV를 켜자...

양고기 한부분을 먹어 본 후, 책에 쓰여진 양고기 맛을 읽고 다시 양고기 맛을 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 양고기 맛을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정확하다”고 했다.

현대와 같이 다양하고, 다변하는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며 정확한 객관성을 표현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처음 공해문제에 관심을 갖은 것은 1960년대 말이다.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서 발행하는 EVER GREEN이라는 잡지에서 현대문명이 덤으로 공해문명까지 양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공해의 다양성이 매우 포괄적인 것에 작가로서의 흥미를 느꼈다.

1960년대 말만 해도 환경문제는 극히 일부 학자의 실험실과 행정관서의 결재함에 있었음에 따라 공해문제에 관한 자료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자료를 얻기 위해 외국서적을 구해 읽어야 했다.

얼마 후 평소 가깝게 지내던 박창근씨가 본격적으로 환경보호 운동에 뛰어들어, 그로부터 다양하고 포괄적인 환경문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겐 행운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해소설 “병든 지구”를 발표한 동기를 살려 환경문제의 본격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중편 “저어강의 어부”를 집필하게 되었고 그 작품은 그 해 큰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그 후 나는 되도록 내 글에 환경문제에 따른 사회 병리적 현상을 대입시키려 노력해 왔다. 즉 물리 화학적인 측면의 환경오염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환경문제의 특이성에 따라 계속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해야 했는데, 그런 공해 자료

는 전과 달리 최근엔 우리들의 일상 생활주변에서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어 편해졌지만. 또한 한편 공해가 보편화된 것을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생활 주변이 모두 공해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아침에 눈떠 처음 읽게 되는 신문에서 부터 공해(기사)를 만난다. 식탁의 공해식품을 생각 안하기로 한 것은 오래다. 이것 저것 따지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대문을 나서면 그때 부터 공해의 늪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 이미 한계를 넘어선 자동차의 홍수 그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시커멓게 물든 가로수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잿빛 스모그에 휘감겨 유령처럼 보인다.

이미 도심엔 여유가 없어진지가 오래다. 여유를 만들어 주는 공간과 푸르름대신 이곳 저곳에 흉측하게 입 벌리고 있는 지하도의 커다란 입과 초라하고 더러운 육교의 물결이 사람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답답해 한강으로 나가 보지만 병든 한강은 시멘트 침대에서 죽어 가고 있고, 때마침 잿빛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산성눈이다. 쫓기듯 집에 돌아와 TV를 켜자 그곳에서도 공해가 쏟아져 나온다.

“노동부는 최근 포항제철 작업장에서 발암물질인 콜타르피치가 허용치의 최고 20배까지 검출되었다는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팀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

郑乙炳